



경북도는 26일 '2025년 감염병 업무 사업설명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경북도

“감염병 팬데믹 두렵지 않다” 경북, 보고·대응 교육 열어

경상북도는 26일 '2025년 감염병 업무 사업설명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는 시군 보건소 감염병 업무 담당자 7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 새로운 감염병 위협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보고 체계와 대응 방법, 개인보호복 착용의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도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소 담당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염병 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초빙해 '감염병의 이해'에 대한 특강도 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팬데믹이 와도 두려움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의무화한 감염병 교육과 관련해 시군별로 모든 공무원이 1시간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게 교육 방법 등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미자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병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시군 보건소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성주군은 26일 반다비 체육센터 개장식을 개최했다. 성주군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개장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동 이용

경상북도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가 2개월의 무료시범운영기간을 마치고 26일 개장식을 가졌다. 27일 성주군에 따르면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문화체육시설로 '반다비'는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달가슴곰의 명칭으로 계층과 장애를 극복하는 굳은 의지와 화합을 상징한다. 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836㎡에 △1층 체력단련실과 다목적홀 △2층 다목적체육관·소체육관·다목적실(보치아 경기장) △3층 동아리 활동 공간·주민 공동시설(북 카페·키즈머뎀 공간) 등 종합스포츠타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복합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2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 8월 착공돼 2024년 6월 준공 후 올해 정식 개장했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경북 “물 중소기업에 판로 물길 콕콕 터주자”

유티밸리 비즈니스 위크 물 기업·기관 500여 명 참석 성료 “깨끗한 물은 삶의 생명수”... 500건 이상 구매상담회 성사

경상북도는 26·27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025 유티밸리 비즈니스 위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기업·학계·연구·관계기관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물 기업·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물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임이자 국회의원,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경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여해 지역 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행사 동안 물 산업 기관, 기업 간 2025년

사업계획과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 △지역 물 기업의 국내외 신기술과 제품 전시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희망하는 기관과의 사전 매칭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구매 상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도와 대구시의 '2025년 사업 추진 계획'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낙동강유역 관련 발주계획',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의 '기업지원사업 소개'를 통해 지역 물 산업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직접적인 상담이 어려운 물 기업과 공공기관 간 맞춤형 구매상담회는 사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26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열린 '2025 유티밸리 비즈니스 위크'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환경부

에 조율한 '고정 구매 상담'과 기관 담당자가 현장에 있는 기업 홍보부스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구매상담'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500건 이상의 상담을 성사해 지역 물 기

업의 수요처 확대에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 부지사는 “깨끗한 물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필

수적인 자원이다”며 “지역 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우리 지역에 물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부산 강서구 명지항 ‘살고 싶은 어촌’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국비 30억 원 확보 낙후된 어항시설 개선... 지역 주민 삶 높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항'이 해양수산부 주관의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따라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유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세 가지 유형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으로 2030년까지 5년

간 전국 어촌지역 300곳에 총 3조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 전국 총 33곳 선정에 이어 올해는 전국 총 25곳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강서구 명지항'은 시가 낙후된 어항시설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강서구 명지항'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국비 30억 원 등 총 사업비 43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도심 어촌의 낙후된 어항시설 개선으로 재해 예방과 함께 마을환경 개선 등 어촌 정주 여건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심 속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9개 어항에 총 사업비 793억 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명지항 일대. 부산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가장 큰 동권역 1곳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도심 속 어촌의 정주 여건 및 생활·경

제 환경 개선 등 어촌사회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부산, 노후 경유차 8800대 조기 폐차... “대기 맑게”

차종·연식 따라 차등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추가

부산광역시는 대기 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5등급 4800대, 4등급 3900대, 건설기계 100대 등 총 88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총 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100%로 상향됐다.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 추가 보조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플래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폐차 시 지원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누며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인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 검사) 검사 비용을 폐차 보조금 지급과 별개로 1대당 1만 4000원을 지원한다.

폐차 보조금 청구 시, 납부한 수수료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만 4000원 외 추가가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1만 4000원 미

만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 서류(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기재된 지급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쿠광, 김해에 1930억 원 설비 투자 협약

1450명 신규 고용 기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경상남도가 글로벌 스마트 물류 기업인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 김해시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약 193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며 145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6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완수 지사,홍용준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쿠광 관계자,홍태용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오늘 협약으로 향후 물류센터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내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쿠광이 AI 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을 이끌며 유통과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투자가 경남을 물류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물류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달 12일 체결한 주력산업 분야 투자협약 이후 이뤄낸 성과로 경남도가 주력산업 분야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업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는 전자상거래



경남도와 쿠광이 2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해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

전문 기업인 쿠광의 자회사로 택배 및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전문 기업이다.

로켓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사업, 택배 분류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헬퍼 사업, 가전제품 방문 설치 및 AS 사업 등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김해시 안동 163-2 외 4필지에 설립될 스마트물류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주문과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춘 예정이다. 물류창고와 배송 거점을 복합화한 모델을 적용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주력산업뿐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관광·스마트물류·첨단 에너지 산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기업 유치를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윈스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 지원제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원형희 기자 whh@skyedaily.com